

광주 첫 '성인고등학교' 대신高 가보니



대신고등학교 오전반 학생들이 학교 3층 시청각실에서 특별강좌를 듣고 있다. /인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당당한 삶... 배움 향한 열정 불태운다

올 3월 개교한 광주시 서구 매일동 대신고등학교, 여느 고등학교와 다를 게 없는 교실이지만 그 안에는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광경이 있다.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 를 듣고 있는 희희낙락한 머리의 60대 신사, 10대 짝과 나란히 앉은 50대 주부, 엄마 같은 짝꿍을 둔 20대 남학생...

대신고등학교는 만 18세 이상의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광주의 첫 2년제 성인고등학교다. 올해 1기 입학 학생은 10대에서 60대까지 모두 279명. 오전·오후·야간 반 6개 학급으로 구성돼 각각 오전 9시·오후 1시 30분·6시에 수업을 시작, 하루 45분 4교시의 수업이 이뤄진다. 1년 3학기제로 운영된다.

아들·딸·손주같은 짝꿍 든 50·60대... 이젠 대학에도 도전... '만학의 꿈' 키워

배움의 기회를 다시 잡았기 때문 인지, 이들에겐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났다. 2남1녀의 어머니인 이진숙(가명·여·58)씨는 막내 딸까지 시집을 보내자 무력감에 빠져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었다. 중졸인 이씨는 "힘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우연히 대신고를 알게 된 뒤 공부라는 게 하고 싶었다"며 "드라마의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국사 시간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이씨는 딸들이 학용품까지 사다주며 응원해줘 힘이 된다고 활짝 웃었다. 만학도가 대부분인 이 곳엔 나이

어린 학생들도 눈에 띈다. 부모님 같은 급우들과 공부하는 것이 아직 어려운 김은혜(가명·여·18), 정주희(가명·여·18)양은 지난해 고등학교를 그만뒀다. 은혜는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싫어, 주희는 답답한 틀이 싫어 각각 자퇴한 것이다. 그것도 잠시였다. 은혜는 "한동안 아무의 간섭도 없이 술마시고, 이른 흥내를 내며 놀았는데 문득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른 애들처럼 미팅도 하고, 엠티도 가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정준(가명·25)씨는 7년 만에

학교에 돌아왔다. '고교 중퇴'라는 학력이 그의 앞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서씨는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 려 했는데 고졸 학력을 요구하는 바람에 졸업장을 따라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대학에도 도전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명균 대신고등학교 교장은 "가끔 수업에 들어가는데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 기분이 좋다.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훌륭한 학생들이다"며 이들의 열정에 찬사를 보냈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어제 본 드라마, 자식을, 족지시절 결과 얘기로 분주하던 복도가 조용해졌다. 잠시 후 더듬더듬 영어 단어를 읊어 나가는 소리가 온 교실에 울려 퍼졌다. /김영욱기자 wool@kwangju.co.kr



식목일을 나흘 앞둔, 1일 오전 김용백(남·44)씨 가족이 가족나무 심기 "나무처럼 곧고 빠르게 크라"는 이름표를 단 매실나무를 광주시 서구 유촌동 상무버들 1단지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 심고 있다. 나무 심기에는 이 아파트 주민 70여명이 참여, 뽕나무와 철쭉 등 640그루를 심고 가족 이름과 소망을 적은 이름표를 달았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조선대 후문 거리 차없는 문화거리로

노점상과 주차 차량으로 발 디딜 틈 없었던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 후문 거리에 대학생들의 개성이 '톡톡' 튀는 차 없는 문화거리로 거듭났다. 조선대총학생회와 후문 주변 상인들은 지난달 29일 첫 행사를 갖고 2주에 하루 풀(12일, 5월3일, 17일, 31일 시범운영)로 이곳을 문화공간으로 꾸민다. 총학생회 장종호(법학과 3년) 부회장은 "주변 상인들이 학교에 주차할 수 있는 무료주차권을 나눠줬고, 차없는 거리에 업소 홍보 공간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보건소·알콜센터의 금연·금주 홍보 등 각종 캠페인도 개최한다. 총학생회 장종호(법학과 3년) 부회장은 "주변 상인들이 학교에 주차할 수 있는 무료주차권을 나눠줬고, 차없는 거리에 업소 홍보 공간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방건설기술심의위 220명으로 재구성

광주시는 100억원 이상 대형건설 공사 설계의 적정성과 입찰방법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를 1일 재구성했다. 위원 임기(2년)가 지난달 31일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토목·건축·기계 등 22개 분야 220명의 전문가들로 이뤄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종전 120명에서 220명으로 대폭 수를 늘리는 한편, 전문성도 크게 보완했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저소득층 집에서 의료서비스 받는다

市, 이달부터 의사·간호사 등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추진

광주시는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의사·간호사 등 41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이달부터 '찾아가는 보건소' 개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서비스 대상은 우선 기초생활보조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독거노인·노인부부세대·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우선 순위가 포함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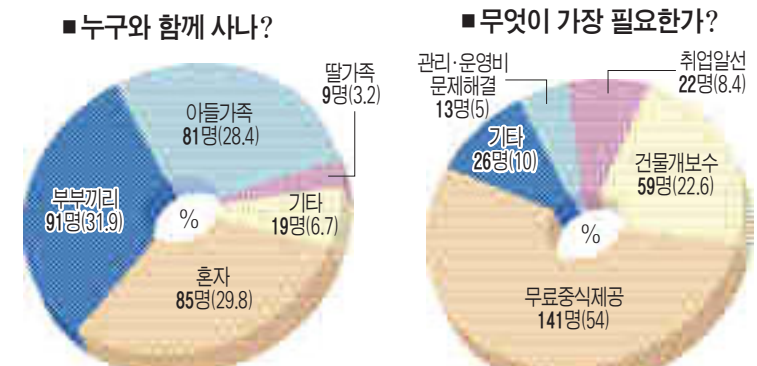
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거동이 불편한 집중관리군의 경우 향후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면 간병 수발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뇌졸중, 치매 등 만성질환 합병증을 조기에 예방,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점심 주는 곳이 최고"

경로당 이용자 절반이상 해결 과제로 꼽아

광주시 북구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점심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43·광주 북구 갑) 의원이 지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북구 내 경로당 124곳의 이용자 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응답자 261명 중 54%인 141명이 '무료 중식 제공'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노인들은 '건물의 개

보수'(59명·22.6%), '노인 취업 알선'(22명·8.4%), '관리·운영비 문제'(13명·5%) 등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인들의 점심 해결이 시급한 것은 '경로당 이용시 점심식사 해결방법'을 묻는 질문에 '경로식당'이라고 답한 사람이 50.7%(143명)에 불과한 사실로 확인된다. 41.8%(118명)는 점심을 '집에서' 먹고, 4.3%(12명)는 '사람의 집'에서 해결했다. 또 경로당에 다니는 노인 중 절반



이상은 다른 가족 없이 부부끼리 또는 혼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구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85명 중 가장 많은 31.9%(91명)가 '부부끼리 산다'고 답했으며, '혼자' 사는 노인도 29.8%(85명)에 달해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족 해

체의 단면을 보여줬다. 반면 '아들 가족'(81명·28.4%) 또는 '딸 가족'(9명·3.2%), '미혼 자녀'(12명·4.2%) 등 부부 외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은 전체의 35.8%(102명)를 차지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생활안내		신고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가정법률상담소	112
광주도안내	1544-77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2
대한항공	222-2000	광주YWCA	527-0011
아시아항공	221-6300	24시간 청소년상담	1388
한국도로공사	1588-2505	국민알선	1888
		국세중상상담센터	1588-0060
		국세청	1588-9090
		광주민원상담	1588-9090
		소비자 상담	232-6133
		광주 YMCA	524-5400
		광주 YWCA	232-0643-4
		주무고실	292-0643-4
		복합서비스지원센터	369-9881
		국민알선	1389
		국민알선	1389

영어 자동기억시스템!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담: 1800-0596

▶ 문의처: (주)AMS교과서

새로 발명한! 박목정도를 동봉

신속한 상담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 상담료: 무료

▶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상담처: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상무버들 1단지

▶ 상담전화: TEL. 062-672-2002, H.P. 011-609-0450